



이승구 지음 | SFC

『기독교 세계관 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 조하늘 (前 두레학교 교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 되었지만, 익숙해진 만큼 그 무게감도 잃어버린 듯하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윤리적 지침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의 무게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시키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에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한다.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 입문서, 이승구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좀 더 명확히 개혁파적인 성격을 지닌 기독교 세계관 책을 우리말로 쓰고 싶었다’고 밝히면서, ‘학생, 초신자, 기독교적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려는 사람,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천적인 일을 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독자로 초청한다.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책의 목적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자.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함에 있어 이론적인 정립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가? 원론적인 책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은 오히려 소모적이지 않을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외현화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드러내는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세계관의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세계관을 인식하고 문제 삼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검토와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셋째, 자신의 세계관을 잘 정리해야 타 세계관과의 비교도 가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도 할 수 있다.

혹시 기독교 세계관 이론에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위의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목차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1장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외현화시켜야 하는 이유와 그 기본적인 구조 및 특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2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대표적인 특징인 중생자의 영적인 세계관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위해 중생과 그것의 세계관적 의미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신국적 세계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떻게 관련되며 우리의 세계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4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계의 관계를 살펴본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창조의 과정과 특징, 창조의 함의는 무엇인지 알려 준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6장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진리를 알 수 있는가를 다룬다. 전통적 진리관과 현대의 진리관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7장에서는 윤리적 가치론에 대해 살펴본다. 전통적 윤리관과 현대의 윤리관을 비교해 보고,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해 본다.

8장과 9장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각 분과를 세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실천 예와 기독교 세계관이 나아갈 방향을 큰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의 무게감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여타의 원론적인 기독교 세계관 서적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또 정통 신학자의 저서로, 저자의 입장에 대한 굳건한 성경적 토대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다. 6장부터는 신학뿐 아니라 철학적·역사적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적절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끌어 내는데, 그 과정이 깔끔하고 명료해서 집중하기 쉽다. 저자가 예측한 대로,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가 이 책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자 역시 책머리에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하는 일은 복되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며 사는 일은 더 복되다'라고 하였다. 앞서 지적했듯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은 이론이 확장되는 만큼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코 그런 실수가 없기를 당부한다. 지적 호기심만으로 이 책을 접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 입문서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어디까지나 세계관 자체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를 위해서 세계관을 논의할 뿐이다. 부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기독교 세계관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되찾아 주길 기대해 본다.



조하늘 전 두레학교 교사, 현재 세계여행 준비 중이다.

